



## 보존과학이란

- 보존과학(Conservation science)은 “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과학”이다.
- 문화재는 각각 놓여 있는 주변 환경과 오랜 세월 속에서 자연적(물리·화학·물학적 피해), 환경적(대기오염에 의한 피해), 인적(인간에 의한 피해) 피해를 받게 된다. 손상된 문화재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전통기술과 현대 과학기술을 잘 조화시켜 본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데, 이를 연구·조사·보존(보존환경과 수복)하는 것이 문화재 존과학이다.
- 보존과학의 대상은 유형문화재, 즉 금속제품·토도자기(土陶磁器)·목제품·고건축물(古建築物)·석제품(石製品)·회화·지류(紙類)·섬유제품 등의 문화재를 [수복(Restoration)-수리·복원] 하는 것이 보존과학이었으나 현재는 문화재의 기술사적(技術史的) 연구 및 환경 관리 등과 같은 예방 보존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.

##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처리

- 과학적 보존처리의 기본적인 목적은 소장품이 지니고 있는 고유 가치를 유지·보존하고 그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다. 박물관 소장품의 보존처리에서는 다음의 2가지 요소가 중요시 된다.
- 첫 번째는 유물의 구조양식, 재질과 제작기법, 보존상태를 상세히 조사하는 것이다.
- 두 번째는 손상 또는 열화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이다.
-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발굴유물 중 어떤 종류의 것은 손상의 진행속도가 너무도 빠르고 환경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되어야만 한다.

## 문화재 환경(environment)

- 다양한 재질의 문화재는 그 주변 환경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여러 가지 노화현상이 발생하게 된다. 이러한 노화현상은 문화재에 있어서 필연적이다. 그러나 문화재의 수명은 인간의 수명과 달리 주변 환경을 적절히 유지시켜 줌으로써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.
-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온도, 습도, 빛 등의 물리적인 요인과 산화, 환원, 분해 등의 화학적인 요인이 있으며, 곰팡이, 해충 등의 생물학적 요인, 분진 유해가스 등의 공기 오염 등이

있다.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문화재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.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박물관에서는 유물에 적합한 온도, 습도, 조도를 유지하고 있으며, 주기적인 실내 공기 오염물질 측정, 곤충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수장 및 전시환경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.

-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보존처리 개념에서 벗어나 적절한 환경을 유지하여 문화재의 손상을 예방하고 문화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목적을 가진 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.

### 직물 보존

- 보존처리 전



- 보존처리 후



위 글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해 보세요.

1. 보존 과학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.

2.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처리와 문화재 환경에 대해서 읽은 후에 박물관에서 일하는 직물 보존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지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.

3. 다음 사진은 박물관에 있는 서대 (옛날 관리가 입었던 옷의 허리띠)를 보존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. 아래 사진을 보고 서대를 어떻게 보수하고 보존하는지 설명해 보세요.

1. 보존처리 전



2. 손상부 해체



3. 손상부 해체 후



4. 오염부분 크리닝



5. 짜깁기방법으로 보수



6. 연결부 동사 교체



7. 본체 어교 접착 재결합



8. 보존처리 후

